

배포일시	2011. 2. 25.(금) 11:00 (총 9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장기예보관 박인태
		전화번호	051-718-0423

3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한난기의 교차가 심해 대설·강풍·안개·황사·건조에 주의 -

□ 3월의 기상특성

- 봄의 시작으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이동성고기압 영향권으로 바뀌며, 가끔 북쪽의 한기와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난기가 충돌해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함.
- 기온은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간혹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꽃샘추위가 나타나며, 찬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저온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강수량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나, 대기는 대체로 건조하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발작물 등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3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강풍**
한기와 난기가 만나는 환절기로 기온의 차가 심해 난기가 강하게 유입될 때 강한 바람이 불게됨.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주의.
- **안개**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복사냉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교통안전에 매우 유의.
- **황사**
몽골과 중국북부 사막지대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날려 올라간 황사가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관리, 정밀기기 산업 등에서 먼지에 유의하여야 함.
- **대설**
남쪽 난기와 북쪽 한기의 충돌,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울산, 부산, 밀양 등지에서 가끔 많은 눈이 내림.

※ 첨부 : 3월 기상재해 정보(전문) 1부.

※ 문의 : ☎ 051-718-0423, <http://www.kma.go.kr>

[첨부]

3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한난기의 교차가 심해 대설·강풍·꽃샘추위·안개·건조에 주의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1년 2월 25일 11시 발표

□ 3월의 기상특성

- 봄의 시작으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이동성고기압 영향권으로 바뀌며, 가끔 북쪽의 한기와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난기가 충돌해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함.
- 기온은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간혹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꽃샘추위가 나타나며, 찬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강수량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나, 대기는 대체로 건조하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밭작물 등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3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강풍

한기와 난기가 만나는 환절기로 기온의 차가 심해 난기가 강하게 유입될 때 강한 바람이 불게됨.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주의.

○ 안개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복사냉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교통안전에 매우 유의.

○ 황사

몽골과 중국북부 사막지대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날려 올라간 황사가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관리, 정밀기기 산업 등에서 먼지에 유의하여야 함.

○ 대설

남쪽 난기와 북쪽 한기의 충돌,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울산, 부산, 밀양 등지에서 가끔 많은 눈이 내림.

○ 건조한 날씨, 가뭄, 화재

오호츠크해 고기압이나 북고남저형태의 기압계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산맥의 풍하측에는 온난건조한 경향을 나타내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

※ 붙임 : 3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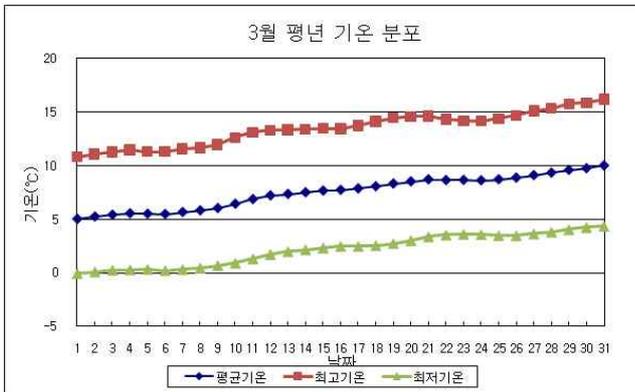
3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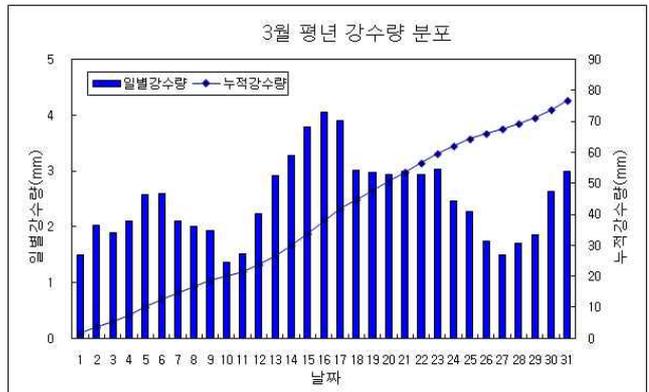
1. 3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지 점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평균기온	7.9	8.7	8.6	8.6	6.8	5.4	6.8	7.2	6.6	8.2	7.9
최고기온	13.2	13.6	13.4	13.4	13.7	12.7	14.0	14.1	13.4	13.2	13.3
최저기온	3.2	4.5	4.9	4.4	0.4	-1.1	0.4	0.5	0.6	3.2	2.9
강 수 량	65.8	74.3	80.7	83.1	72.1	55.1	53.2	54.4	68.5	113.8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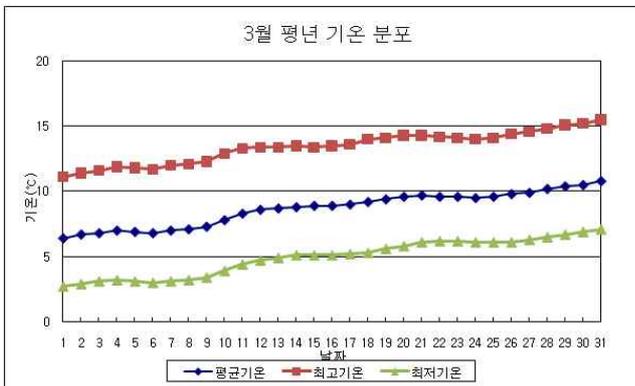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3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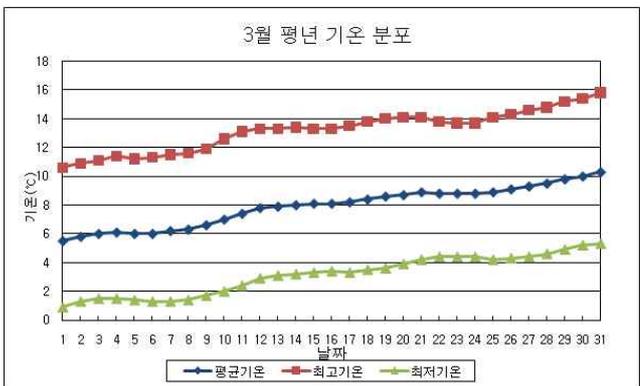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3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3월)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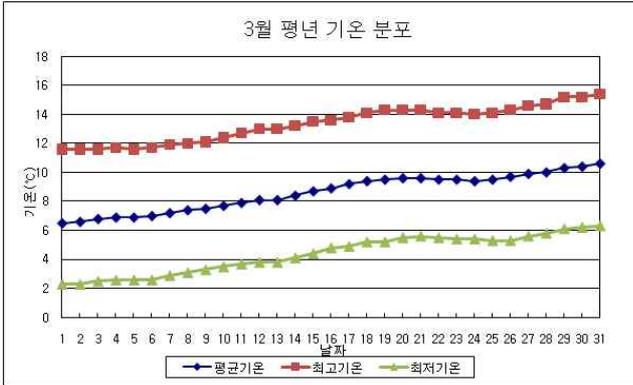
울산



창원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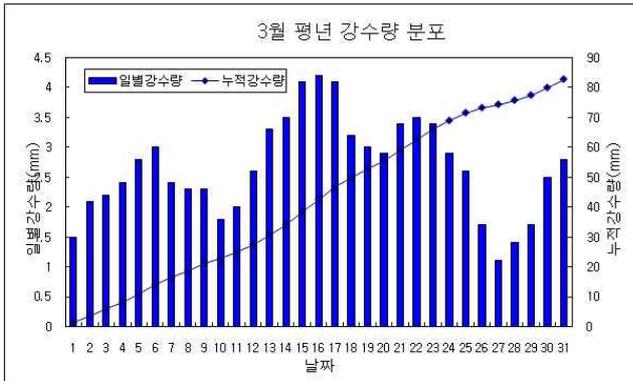


통영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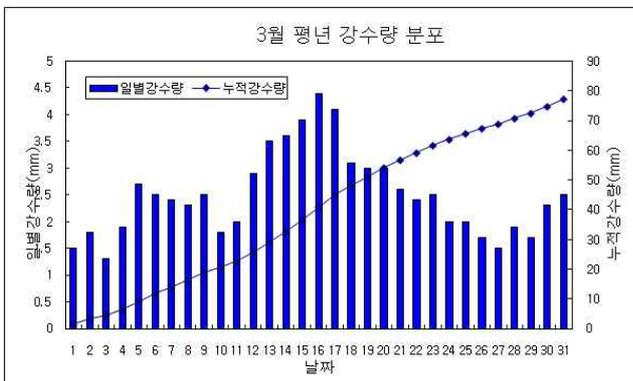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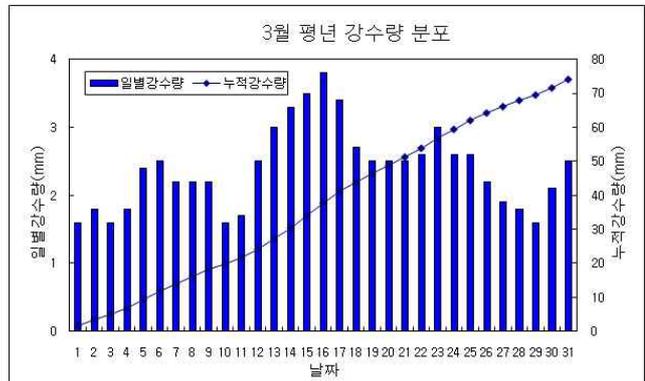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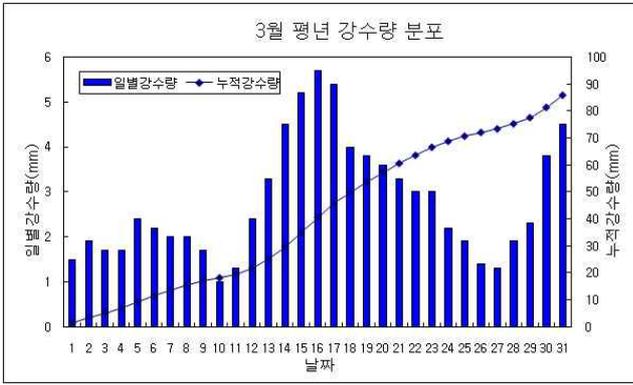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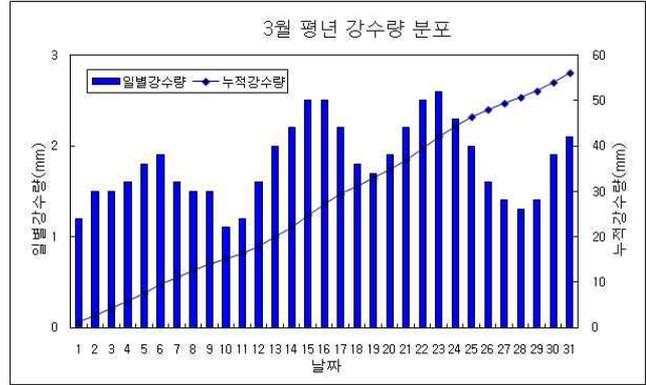
창원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3월)

○ 평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3월 상순	5.2	7.0	6.1	6.9	4.6	7.1	3.2
3월 중순	7.4	8.9	8.1	8.9	7.0	8.7	5.6
3월 하순	8.8	10.0	9.3	10.1	8.7	9.9	7.2
평 균	7.1	8.6	7.8	8.6	6.8	8.6	5.3

○ 최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3월 상순	11.4	11.9	11.4	11.9	11.5	11.8	10.3
3월 중순	13.8	13.7	13.6	13.8	14.0	13.6	13.1
3월 하순	15.0	14.5	14.4	15.0	15.4	14.6	14.6
평 균	13.4	13.4	13.1	13.6	13.6	13.3	12.7

○ 최저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3월 상순	-0.2	3.2	1.4	2.5	-1.8	2.8	-3.0
3월 중순	1.7	5.1	3.3	4.8	0.5	4.5	-1.0
3월 하순	3.3	6.4	4.6	6.1	2.4	5.7	0.6
평 균	1.6	4.9	3.1	4.5	0.4	4.3	-1.1

○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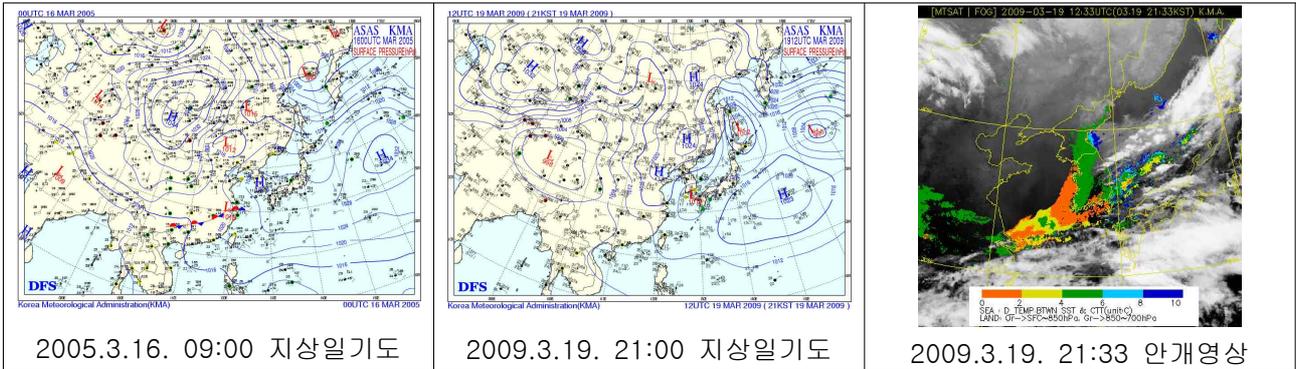
단위 : mm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3월 상순	19.2	22.0	19.7	18.3	19.1	18.5	15.4
3월 중순	25.1	32.3	24.1	33.5	28.6	36.8	18.8
3월 하순	24.0	26.4	22.0	22.6	24.4	27.8	20.8
합 계	68.3	80.7	65.8	74.4	72.1	83.1	55.0

(평년기간 : 1981 ~ 2010년)

□ 안개(2005년 3월 16일, 2009년 3월 19일)

2005. 3. 16.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복사냉각 현상으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새벽과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음. 2009. 3. 19.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서쪽으로부터 온난다습한 기류가 남해상으로 유입되어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발생하였음.



○ 2005. 3. 16. 안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을 많이 받으면서 지면에 접해있는 수증기가 응결하여 경남내륙 대부분의 지방에서 시정거리 1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남해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진주지방에서는 이날 새벽 4시 25분부터 안개가 발생하여 오전 10시 25분까지 지속되었음. 그 외 거창과 합천 등 내륙지방에서도 짙은 안개가 발생하였음.

○ 2009. 3. 19. 해상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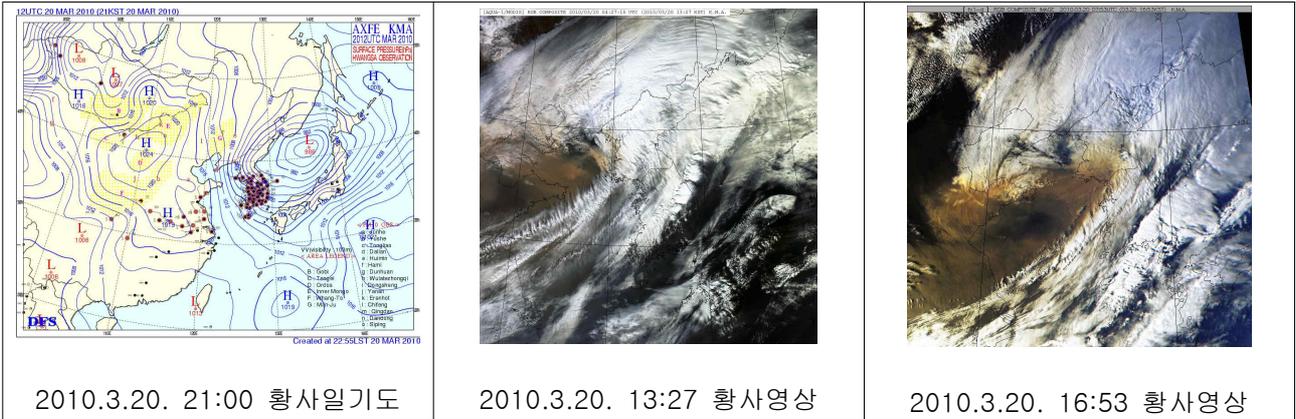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로 수증기가 많은 상태였고,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남서해상에서부터 안개가 발생하였으며, 남해동부해상까지 안개가 이류해왔음. 이날 해상에서는 안개로 인한 선박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관련 기사

<p>남해고속도 6중추돌 2명 사망, 7명 부상</p> <p>고속도로상에서 6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p> <p>16일 오전 11시10분께 경남 김해시 불암동 남해고속도로상에서 전남 80바 51××호 16t 화물차(운전자 서모 45)와 울산 31무 21××호 그랜저 승용차(운전자 박모 50) 등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다.</p> <p>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송모(여 45) 김모(여 49)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박씨와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p> <p>김해 = 노수문기자 synho@kookje.co.kr</p>	<p>남해안 안개로 잇따른 안전사고... '주의'</p> <p>NEWSIS 기사입력 2009-03-20 14:10</p> <p>【통영=뉴스시스】</p> <p>최근 부산과 경남 남해안 해상에서 발생한 안개로 선박이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p> <p>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시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짙은 안개로 사천선적 74톤급 멀치잡이 어선과 캄보디아 국적의 228톤급 원양어선이 충돌했다.</p> <p>사고 당시 해경이 긴급출동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멀치잡이 어선 오른쪽 선미가 크게 파손돼 수리조선소로 옮겨졌다.</p> <p>해경은 양 어선이 안개가 시야를 가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p> <p>또 이날 오후 8시20분께는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서 운행 중이던 2.5톤급 요트(승선원 2명)가 짙은 안개로 항로를 찾지 못해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다.</p> <p>인근에서 경비 중인 함정이 출동해 이 요트를 통영항까지 안전하게 호송했다.</p> <p>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심한 일교차 때문에 해상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며 "선박 운전자들은 해상 안개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p> <p>최운용기자 yong4758@newsis.com</p>
<p>2005. 3. 16. 국제신문</p>	<p>2009. 3. 20. 뉴스시스</p>

□ 황사(2010년 3월 20~21일)

몽골에서 발달하면서 남동진하는 저기압 후면의 강풍역인 고비사막, 중국 북부지방과 황토고원에서 황사가 강하게 발원하였으며, 이 황사는 3월 20일 새벽 발해만과 중국 중부지방을 거쳐 20일 오후에 백령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매우 짙은 황사가 나타남.



○ 3월 20일 주요지점별 최고 미세먼지농도(1시간 평균, 단위 $\mu\text{g}/\text{m}^3$)

지점명	미세먼지농도	황사 이동 경로
진주	2,265 (2010. 3. 20. 22:00)	
구덕산	2,344 (2010. 3. 20. 23:00)	
울산	1,991 (2010. 3. 20. 23:00)	

○ 관련 기사

서울신문 2010년 03월 22일 월요일 014면 사회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황사경보가 발령될 만큼 최악의 황사가 덮친 20일 오후. 누런먼지로 가득한 서울 광화문공원에서 경찰간이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왼쪽) 21일 오후 황사가 갈라져 광화문광장 뒤로 북악산이재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쪽) 21일 오후 황사가 갈라져 광화문광장 뒤로 북악산이재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쪽) 21일 오후 황사가 갈라져 광화문광장 뒤로 북악산이재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용 수습기자 tuu@seoul.co.kr 연합뉴스

같은 서울, 같은 건물. 지난 20~21일 황사가 몰아치던 20일 오후와 맑은 날인 21일 오후. 서울의 모습은 하늘이 바뀌었다. (오른쪽) 21일 오후 황사가 갈라져 광화문광장 뒤로 북악산이재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용 수습기자 tuu@seoul.co.kr 연합뉴스

후미鮮日報 2010년 03월 22일 월요일 A05면 종합

'황사에 갇힌 서울' 초저녁 같은 오후 '수퍼 황사'가 공습했던 20일 오후.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서울 광화문을 지나고 있다. 짙은 황사 먼지에다 잔뜩 흐린 날씨로 초저녁처럼 어두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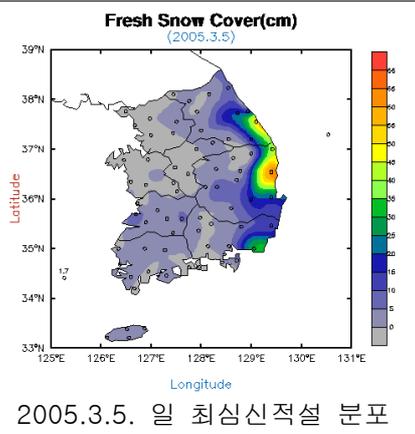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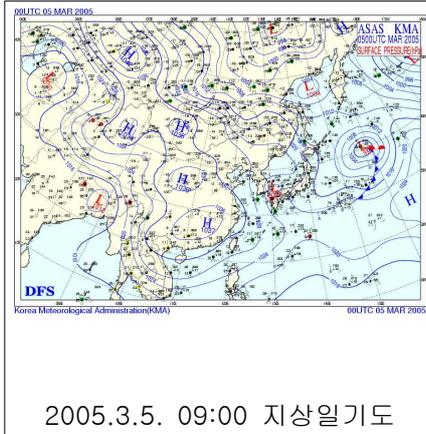
김태용 수습기자 tuu@seoul.co.kr 연합뉴스

21일 황사의 강도를 말해주듯 대강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서 있는 자동차들이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다.

김태용 수습기자 tuu@seoul.co.kr 연합뉴스

□ 대설(2005년 3월 5~6일)

동해북부로 확장한 찬 대륙고기압과 일본 큐슈부근에서는 발생한 저기압 사이에서 찬 북동기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부산에서는 적설량 최고 극값인 37.2cm의 눈이 내렸고, 울산 18.4cm, 밀양 11.0cm 등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이 눈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학교는 휴교하였으며,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고, 눈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지명	신적설 (cm)	지명	신적설 (cm)
부산	37.2	합천	-
울산	18.4	밀양	11.0
창원	4.1	산청	0.3
통영	2.7	거제	8.6
진주	-	남해	-
거창	-	-	-

2005.3.6. 일 최심적설

○ 부산·울산·경남지방 3월 일 최심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산	2005.03.06	18.4	2005.03.05	12.7	2004.03.03	5.2	1969.03.12	4.1	2004.03.04	3.5
창원	2005.03.06	4.1	2005.03.05	3.5	2010.03.10	2.4	2001.03.04	2.2	1988.03.07	0.1
부산	2005.03.06	37.2	2005.03.05	29.5	2005.03.07	5.8	2010.03.10	5.4	1915.03.12	4.5
통영	2010.03.10	4.1	2005.03.06	2.7	1969.03.12	0.9	1972.03.02	0.0		
진주	2010.03.10	3.4	2010.03.09	3.0	1987.03.07	2.8	2001.03.30	2.7	2003.03.06	2.1
거창	1984.03.02	9.6	1984.03.01	8.9	1991.03.11	8.5	2003.03.06	8.0	1987.03.07	7.7
합천	1984.03.01	3.5	1991.03.11	3.4	1984.03.02	3.2	2001.03.30	2.8	2003.03.06	2.7
밀양	2005.03.06	11.0	2005.03.05	6.2	1976.03.03	2.8	2004.03.06	0.5	1984.03.01	0.5
산청	2003.03.06	13.1	2003.03.07	9.2	1992.03.18	5.9	1989.03.24	5.8	1987.03.07	5.5
거제	2005.03.06	8.6	2005.03.05	3.8	2004.03.03	1.2	2004.03.04	1.0	1984.03.01	0.7
남해	1987.03.07	2.0	1994.03.24	0.3	1977.03.24	0.0	1972.03.31	0.0		

○ 관련 기사

100년만의 폭설 주말부산 '울스톱'

37.2cm '기록'...도심 교통·공항·항만 한때 마비
울산 18.4cm·양산 24cm...비닐하우스 피해 속출

부산 특유의 찬 대륙고기압과 일본 큐슈부근에서 발생한 저기압 사이에서 찬 북동기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부산에서는 적설량 최고 극값인 37.2cm의 눈이 내렸고, 울산 18.4cm, 밀양 11.0cm 등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이 눈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학교는 휴교하였으며,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고, 눈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3월 '눈폭탄'...사람도 꽃도 '화들짝'

'100만년 특설' 부산·경남 폭설

3월 특유의 찬 대륙고기압과 일본 큐슈부근에서 발생한 저기압 사이에서 찬 북동기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부산에서는 적설량 최고 극값인 37.2cm의 눈이 내렸고, 울산 18.4cm, 밀양 11.0cm 등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이 눈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학교는 휴교하였으며,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고, 눈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2005. 3. 5~6. 대설 피해 신문기사(국제신문)